

<봉인된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마치 거울 속을 보듯 당신의 영화 속에서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한 영화가 내게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P.14

이 같은 장면들 속에서 예술가는 자신을 인생의 탐구자로서 증명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숭고한 정신적 가치의 창조자, Poesie만이 갖고 있는 저 특별한 아름다움의 창조자로서 자신을 나타낸다.p.25

이 모든 것들을 예술가는 독특한 방법으로 절대적인 것을 포착하는 한 형상의 창조 속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이 형상의 도움으로 끝없는 진리에 대한 느낌이 제한적 수법을 통하여 표현된다. P.47

예술가는 상황의 주인이 아니고 하인이다. 창조성이란 예술가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형태이며, 자신의 작품 하나하나를 자신이 자유롭게 거절할 수 없는 하나의 행위를 의미한다. P.53

천재란 결국 자기 자신을 한 작품의 절대적 완벽성 속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 성실성과 자신의 정열에 대해 시종일관 책임 있게 대하는 자세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P.67.

가장 주된 차이점은 문학이 언어의 도움으로 세계를 묘사하는 반면 영화는 아무 언어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영화는 직접적이다. 영화는 우리들 스스로를 눈앞에 제시하는 것이다. P.76

인간은 보통 잃어버린 시간, 놓쳐 버린 시간, 또는 아직 성취하지 못한 시간 때문에 영화관에 간다. P.79

(관객은 자신의 경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관람권을 사는 것이며, 자신의 그 "잃어버린 시간"을 뒤쫓는 것이다. P.105)

영화의 리듬은 편집된 단위 화면들의 길이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위 화면 속에 흐르는 시간의 긴장감이 정해 주는 것이다. P.146

나는 배우들에게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특별한 이해를 하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우들이 촬영 전에 작품의 기본 구상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음이 증명되기만 하면, 촬영 시에 배우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P.186

이 창조적 작업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부업이 아니라, 예술가 자신의 재생산하는 유일한 생존 형식일 경우에만 창작의 권리를 부여 받는다는 말이다. P.241

특히 그 중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다른 예술 분야의 특성을 옮겨 놓을 경우, 영화 작가와 삶의 사이에 심연이 가로놓이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들 사이는 항상 낯은 예술 형태의 작업 방식과 중재

자에 의해 밀리게 된다. P.27

인간은 항상 이 세계와 관계를 맺게 되며, 이 세계를 획득하려는 고통스런 요구에 내몰린 채, 자신이 직관적으로 감지한 이상과 이 세계를 조화시키고자 애쓴다. 이 채워질 수 없는 요구야말로 인간적 불만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고통의 영원한 원천인 것이다. P. 46

삶의 물질성은 물질성이 완전히 용해되어 없어져 버리는 그 경계선상에 존재한다. P.79

전통적인 진실이란 자기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뒷받침될 때에만 비로소 진실로 남게 되는 것이다.p.113

그러나 감독이 자신이 탐색하던 바를 필름에 고정시키는 순간부터, 즉 자신의 작품 구상을 객관화시키는 순간부터, 감독은 자신이 영화적 수단을 사용하여 관객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발견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탐색의 어둠 속을 헤매서는 안 되는 것이다. P.124

그러나 영화의 필름 속에 포착되는 현상은 이에 반해 극도로 주관적인 시간이 문제될 때에만 총체적이면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인지되는 것이다. P.149

우리들은 색깔의 중립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색깔이 관객에게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 P.180

예술에 있어서 객관성이란 항상 작가의 객관성인 것이며 다시 말하자면 주관적인 것이다. P.196

예술은 그 속성상 귀족적이며 따라서 수용 대중들과도 일종의 선택의 형태로 만나게 된다. P.211

삶이란 부조화에 가득 차 있는 반면 인간의 영혼은 궁극적으로 조화를 갈망한다. 이러한 모순 속에 인간이 꿈틀거리게 되는 자극을 받게 되고, 또한 동시에 인간의 고통과 희망의 원천이 있는 것이다. P.244